

스타트업 코리아 펀드, 22개 펀드, 6,400억원 규모 조성 착수

- 27개 출자기관 중 8개 기관이 벤처펀드에 최초 출자, 나머지 19개 기관도 전년 대비 출자 규모를 2,500억원 이상 대폭 확대
- 해외기업이 처음으로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에 참여, 국내 벤처·스타트업과의 협력 확대

중소벤처기업부(장관 한성숙, 이하 중기부)는 29일(금) ‘스타트업 코리아 펀드’ 출자사업의 벤처펀드 선정을 마쳤다고 밝혔다.

* 글로벌 시장에 도전하는 딥테크 스타트업 등에 중점 투자하기 위하여 대기업, 중소·중견기업, 금융권과 정부가 함께 조성하는 벤처펀드(‘24년~)

2025년 ‘스타트업 코리아 펀드’는 27개 민간 출자자가 2,488억원을, 모태펀드가 1,716억원을 출자하여 총 6,401억원 규모로 결성될 예정이다. 분야별로 살펴보면, 초격차·글로벌 분야 2,625억원, 오픈이노베이션 분야 2,170억원, 세컨더리 분야 1,606억원 규모이다.

< 2025년 스타트업코리아펀드 분야별 선정 결과 (단위: 억원, 개) >

분 야	최종 선정				주목적 투자분야
	민간출자	모태출자	결성예정	펀드 수	
초격차·글로벌	1,220	765	2,625	10	글로벌 진출이 기대되는 10대 초격차 분야 스타트업
오픈이노베이션	868	651	2,170	9	벤처·스타트업과의 기술제휴 등 오픈이노베이션 목적 투자
세컨더리	400	300	1,606	3	국내 중소벤처기업의 구조 등 인수
계	2,488	1,716	6,401	22	-

특히, 올해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에 참여한 27개 민간 출자자 가운데 코스맥스, 성균관대학교기술지주회사 등 8개 기관은 이번 펀드를 계기로 벤처투자에 최초로 나섰다. 과거 벤처펀드 출자 경험이 있는 19개 기관도 전년(‘24년)보다 벤처펀드 출자 규모를 크게 확대*한 것으로 나타났다.

* 출자 이력 보유 비금융 일반법인(14개): (‘24) 210억원 → (‘25) 1,375억원 (+7배 ↑)
출자 이력 보유 금융기관(5개): (‘24) 2,989억원 → (‘25) 4,368억원 (+46%)

해외기업이 처음으로 ‘스타트업 코리아 펀드’에 참여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. 도쿄세경센터를 비롯하여 제일 동포기업 및 한일협력기업 연합이 고국의 벤처·스타트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참여했으며, 일본 최대 CRO* 기업인 CMIC가 국내 바이오 벤처·스타트업과의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나섰다.

* 신약 임상시험 대행 수탁기관, Contract Research Organization

아울러, 올해 신설된 ‘오픈이노베이션’ 분야에 9개 벤처펀드가 신규 조성되어, 뷰티·바이오·반도체·기후테크·AI 등 우리나라 미래 성장을 이끌 전략 분야에서 개방형 혁신의 중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.

한국콜마와 코스맥스가 각각 200억원 규모로 벤처펀드를 조성하여 K-뷰티 브랜드사 및 뷰티테크 스타트업 등 화장품 분야 생태계 전반에 투자할 예정이며,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15개 회원사와 함께 제약바이오 산업 성장을 이끌 유망 후배 기업에 투자할 계획이다. 이 외에도 NH농협금융그룹, 포스코홀딩스, LX세미콘, 현대해상, GS건설 등이 이번 펀드 출자를 계기로 사업 전반에서 딥테크 벤처·스타트업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.

한성숙 장관은 “국내 벤처투자 생태계가 글로벌 최고 수준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기업·금융권 등 다양한 민간자금의 벤처투자 참여를 이끌어 내는 것이 최우선 과제”라면서,

“스타트업 코리아 펀드와 같이 모태펀드가 플랫폼으로서 보다 많은 기관의 벤처투자 참여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이들이 보다 과감한 출자에 나설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벤처투자 관련 제도 개선도 추진해나가겠다.”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창업벤처혁신실 벤처투자과	책임자	과 장	강신천 (044-204-7710)
		담당자	사무관	박민지 (044-204-7712)
			주무관	진명철 (044-204-7716)
			전문위원	이원찬 (044-204-7618)

